

Cogito, ergo sum의 意味

——主體性的 確立을 위하여——

崔 明 官*

第 1 章 主體性的 問題

1. Cogito 와 主體性

Descartes 哲學의 第一原理인 Cogito, ergo sum 과 主體性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고 의아히 여길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Cogito 의 原理는 主體性的의 第一原理라고도 생각된다. 主體性的의 참된 모습을 Cogito 에서 原初的으로 찾아볼 수 있음직도 하다. 常識的으로는 Cogito 의 原理와 主體性的의 兩者가 아무 관련도 없고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러한 常識的의 見解를 가진 분에게는 이 論文이 Descartes 哲學의 立場에서 主體性的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라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Cogito 의 原理는 또한 主體性的의 原理가 될 수 있다고 筆者는 생각한다.

2. 主體性的의 逆理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 해 전에 主體性이 많이 論議되었고, 그 후 얼마 동안 主體性에 관한 論議가 조용한 듯싶더니, 근래 다시 '主體'란 말이 자주 쓰이고 南北韓을 통하여 主體性이 強調되고 있다. 1965년에 高麗大學校 附設 亞細亞問題研究所가 主催한 近代化에 관한 國際學術會議에 筆者와 함께 第一分科에 참가했던 어느 日人學者가, 韓國에 와보니 新聞·雜誌마다 主體性을 문제삼고 있는 데 興味를 느꼈으며, 日本에서도 이미 그 전에 한 동안 主體性이 많이 論議되었다고 述懐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筆者는, 國勢가 약해지면 主體性이 많이 문제 되는가보다고 느꼈다. 日本은 敗戰後 主體性이고 뭐고 있을 수 없는 처지에서 차츰 회복해갈 때에 主體性을 문제삼게 되었고, 經濟的으로 크게 復興하고 國際的 地位 역시 크게 向上됨과 함께 主體性 論議가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한편, 우리 나라는 解放의 단 꿈에서 깨어 6·25의 비참한 戰亂에서 차츰 수습해가는 중에 4·19의 몸부림을 거쳐 國民의 覺醒과 함께 知識人

* 文理科大學(서울) 哲學科 敎授

들 간에 主體性이 크게 문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主體性이 문제되고 많이 論議된다는 것은 그만큼 主體性이 없다는 것을 證明해주는 것이 아닌가도 싶다. ‘主體性’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感情이 미국사람이나 조선사람 혹은 영국사람이나 프랑스사람들에게 있는지 의심스럽다. ‘主體性’에 해당하는 英語의 낱말이 있는지조차 모호하다. 구태여 말한다면 subjectivity 일 터인데, 이 말은 오히려 ‘主觀性’의 意味가 강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하면, 主體性을 云云하지 않는 國民이 사실은 主體性이 있고, 主體性을 가지고 떠드는 國民일수록 사실은 主體性이 없다는 逆理가 成立한다고 할 수 있음직하다. 결국, 主體性을 찾는다는 것은 弱少民族의 悲哀라고도 하겠다. 事實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主體性을 찾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참된 主體性을 찾아야 한다.

3. 國家民族的 主體性

以上에 말한 것에서 示唆되었듯이, <主體性>이라 하면, 대체로 民族이나 國家의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우리는 國家民族的으로 얼마나 主體性이 있었으며, 또 있는가? 이 면에서 우리의 主體性은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Petit Larousse* 1961年版에 보면 CORÉE 즉 「韓國」이란 項의 歷史欄이 다음과 같이 記述되어 있다.

韓國(Corée)은 B.C. 1世紀에 中國의 植民地였다; 한 王朝 아래 統一되었던 이 나라는 7世紀에서 9世紀까지 蒙古에 의하여 占領되어 있었다; 다른 王朝, 즉 李朝가 14世紀부터 近代期까지 王位를 차지했다. 19世紀에 中國과 日本이 韓國을 支配하려는 角逐을 벌인 끝에 1907년에 日本의 保護領이 되었다가 1910년에 완전히 併合되었다.

이 나라는 2次大戰後 聯合國에 의하여 占領되었다. 北韓은 조선의 영향 아래 民主主義 人民共和國를 선포하고(1948), 南韓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한 國家를 形成하고 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 두 國家는 武力衝突을 했는데, 中國은 前者를 支援하고 미국과 U.N.은 後者를 支援했다.^①

이 記事 첫머리에 日本語 發音으로 Chosen 이라고 項名을 添加한 것을 보면, 이 記事를 쓴 사람이 日本을 통해서 韓國을 안 듯하다. 따라서 偏見을 가진 記事가 아닌가고 評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 記述은 대체로 簡單明瞭하고 상당히 客觀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우리는 悠久한 歷史를 자랑하지만 오랜 歲月을 두고 中國을 宗主國으로 받아들여왔고, 혹은 武力侵略에 의하여 屬國노릇을 해왔으며, 日本의 植民地였다. 事大主義가 論難되고 親日派・親俄派・賣國奴・民族叛逆者 등의 말을 귀아프게 들어왔다. 이 모든 것이 弱少民族의 恥部를 드러내는 것이요, 主體性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註 ① *Petit Larousse*, 1961, Librairie Larousse, p. 1290.

解放後 獨立이 되고나서도 우리의 主體性은 確立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에 지금도 主體性이 다시금 내세워지고 있다. 日本新聞에 北韓이 츠츠크의 나라라고 宣傳되는 것도 웃기는 일이다. 정말 主體性이 있었다면 어찌서 共産黨 獨裁의 나라가 되었으며, 어찌서 統一이 안되었겠는가? 우리 나라가 主體性 있는 나라요, 우리 民族이 主體性 있는 民族이었다면 事變인들 일어났겠는가? 自由黨 治世에 咸錫憲氏가 어느 雜誌에 쓴 글에 「以南은 미국의 꼭둑각시요 以北은 共聯의 꼭둑각시라」고 한 것이 문제되어 감옥에 들어갔던가 하여간 司直當局에서 苦楚를 겪은 일이 있는데, 그 말인즉 國民의 마음의 深層에 있는 생각을 代辯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말도 결국 우리가 國家的으로 主體性이 貧弱하다는 것을 指摘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하여간 우리는 國家民族的으로 主體性이 박약했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에게 훌륭한 主體性이 確立되어 있었다면, 過去의 무수한 民族의 悲劇이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요, 근래의 일로 말한다면, 越南派兵 같은 것도 없었을지 모른다. 瀕死狀態에 있던 國家經濟가 越南派兵으로 말미암아 숨을 돌리고 經濟發展이 제법 이루어진듯 싶으나, 市場에 범람하는 미국雜貨는 우리 經濟의 植民地的 性格을 端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主體性은 가장 重要한 局面에서 취약하다. 우리는 精神的으로 혹은 자기 方面에는 主體性이 있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가장 重要한 局面에서 主體性이 없으면 결국 主體性은 갖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文化面을 볼 때, 특히 庶民層의 文化 속에 主體性이 강한 傳統과 여러가지 귀중한 文化財가 있어 보인다. 우리의 主體性은 政治・經濟에서 보다는 文化에서 命脈을 유지해왔고, 또 유지해 가는 것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글과 말이라 하겠다. 한글과 한글을 기초로 하는 言語生活 만큼은 우리들의 主體性的 端的인 表現이다. 여기에 우리의 希望의 기초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日帝植民地 時代に 日本 帝國主義者들은 우리 말을 말살하려고 갖은 꾀를 다 부리고 우리를 협박하여 우리의 生命을 呑먹으려 하였다. 言語以外에도 우리의 生活周邊에 우리의 主體性이 살아 있는 文化的 樣相들이 있다. 우리의 옷차림에, 우리의 가락 속에.

이렇듯 文化的으로는 우리가 主體性 있는 民族이었다. 그러나 弱小民族으로서 國家民族的으로 主體性이 없었던 탓으로 우리는 그 슬한 悲劇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또 우리의 文化는 서글픈 文化이기도 했다. 國家民族的 主體性的 確立은 힘과 智慧를 요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는 그 힘과 지혜가 없었다. 우리는 우리의 國家民族的 主體性을 살릴만한 政治的 智慧와 力量을 기르고 가꾸고 가다듬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國家民族的 主體性이 살아 있을 때 우리의 文化는 기쁨의 讚歌가 되겠기에 말이다.

第 2 章 Cogito, ergo sum 의 意味

1. 懷 疑

懷疑를 해본 사람이면 그것이 고달프다는 것을 체험하여 잘 안다. 회의하고 있을 때에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建設的 活動을 할 수 없다. 生命은 좀이 먹는 듯 시들고 마음은 병들기 쉽다. 회의는 精神의 暗夜다. Descartes 도 이러한 회의를 거쳐 살아갔다. 그런데 그 회의는 方法的 懷疑로 유명하다. 挫折에 그치는 회의가 아니라 確實한 길을 닦아 現代를 연 회의였다. 여기에 그의 회의의 큰 意義가 있다. 그것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挫折과 困惑에서 確信과 建設로의 디딤돌이었다.

Descartes 는 학교의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회의와 煩悶에 빠졌던 것 같다.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이 헛되며 아무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 속에 물결쳤던 모양이다. Descartes 는 『方法序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어릴 적부터 人文學을 배우면서 자랐다. 그것들을 통하여 인생에서 유용한 모든 것에 대하여 명료하고도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으므로, 나는 그것들을 배울 것을 熱望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끝마치고, 남들처럼 學者들 측에 끼게 되자마자, 나는 생각을 아주 달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공부하려고 애썼는데도 더욱 내 無知를 발견했을 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여겨질 정도로 여러가지 의심과 誤謬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秘傳的이고 가장 희귀하다고 여기고 있는 학문들을 다루는 책으로서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모조리 읽어 보았다.”^② 이와 같이 Descartes 는 <명료하고도 확실한 지식을 얻기>를 熱望하여 學院에서 가르치는 모든 學問을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는 秘傳的이고 가장 희귀하다고 여겨지는 學問들에도 興味를 가져, 占星學 같은 것을 다룬 책을 耽讀한 모양이다. 또 數學을 좋아하였고, 神學을 존경하였으며, 哲學을 공부하였으나,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뿐더러, 그는 이미 그릇된 學說들(mauvaises doctrines) 즉 鍊金術, 占星術, 魔術의 虛偽性을 看破하고 있었다. 그는 말한다, “그릇된 學說들에 관하여는, 나는 이미 그 正體를 잘 알고 있어서 鍊金術士의 약속에도, 占星術士의 豫言에도, 魔術士의 속임수에도, 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안다고 떠들어대는 어느 누구의 計巧나 허풍에도,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③ 이 말은, Descartes 가 일찍부터 主體性을 가지고 생각하며 學問했음을 보여주거니와, 한편 그 당시의 學問의 狀況이 매우 昏迷하였음을 示唆하기도 한다.

이러한 精神의 狀況, 즉 스콜라學의 課程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나, 그 學問이 약속하

註 ② *Oeuvres de Descartes* (Publiées par Charles Adam & Paul Tannery. 앞으로 이 책을 AT란 略字로 表示하기로 함) VI, *Discours de la méthode & Essais*, 1965, Librairie Philosophique J. Vrin, pp. 4~5.

③ AT, VI. p. 9.

는 成果에 회의하게 되고, 확실한 學問의 기초를 얻고 싶으나 아직 얻지 못하고 있는 狀況에서 Descartes 는 하나의 突破口, 혹은 신선한 공기를 찾아 旅行을 떠난다——〈세계라고 하는 큰 책속에서〉 자기 자신의 理性을 활동시켜, 觀察과 經驗에서 眞理를 찾아내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確信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하여, 참된 것을 거짓된 것으로부터 가려낼 줄 알았으면 하는 극도의 熱意를 늘 가지고”^④ 旅行하는 중에, Descartes 는 “우리들의 自然의 빛을 흐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理性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迷妄으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어 갔다.”^⑤ 그러던 중, 드디어 1919年 11月 10日 밤, 저 유명한 召命의 꿈을 꾸고, 〈하나의 놀라운 學問〉(une science admirable)을 樹立하려는 데에 一生의 方向을 정하게 되었다. 동시에 모든 학문을 묶어 하나로 하는 그 놀라운 하나의 學問 즉 普遍學의 方法을 얻게 되었던 것 같다. 이 普遍學을 Descartes 는 〈普遍的 學問〉(mathématique universelle)이라 부른다. 이것은 모든 학문으로 하여금 數學에서와 같은 確實性和 明證性을 가지게 하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요, 한갓 數學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Descartes 는 모든 학문으로 하여금 數學的 性格, 즉 科學的 性格을 띠게 하려 한 것이다. 이것은 中世의인 것, 非合理的인 것, 迷信的인 것을 학문에서 除去하려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놀라운 학문을 지향하여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Descartes 는 깊은 회의에 빠졌던 것이다. 학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회미하고 애매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Descartes 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확고한 기초 위에 세우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우선은 모든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Descartes 는 의심을 넘어 확실한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은 비단 학문에서만 아니요, 또한 實生活에서도 추구되었다. 이리하여 Descartes 에게 있어 회의는 確實한 것을 찾아내려는, 또 主體性을 확립하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러면 Descartes 는 어떻게 회의했는지 그 생생한 모습을 돌이켜보기로 하자. Descartes 는 『哲學의 原理』(L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에서 회의에 관한 그의 思想을 요약하여 第1, 2, 6項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우리는 어른이 되기 전에 아이였으므로, 또 우리의 理性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우리의 感覺에 주어진 事物들에 대해서 가지가지 모양으로 判斷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성급한 判斷으로 인하여 眞理의 認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判斷들로부터 解放되려면 조금이라도 不確實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一生에 한번은 의심해보는 길밖에 딱 도리가 있을 것같지 않다.
2. 무엇이 아주 확실하고 가장 알기 쉬운가를 더욱 분명하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보고서 버리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註 ④ Ibid., VI. p. 10.

⑤ Ibid., VI. p. 10.

6. 그러나 누가 우리를 지었진, 그리고 그가 아무리 全能하고 우리를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믿기를 삼가므로써 우리가 결국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自由를 우리 속에 경험한다.

第1項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懷疑는 Descartes의 哲學的 思索의 出發點이었다.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므로써, 과연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Descartes 哲學의 첫째 課題였다. 철저한 회의에 의하여 過去의 모든 不確實한 知識體系를 붕괴시키고 아주 새로운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는 일이 없는 確固不動의 기초를 세우려는 것이 그의 念願이었다. 眞理의 認識을 위한 회의, 그리고 결코 속지 않도록 조심하는 自由——이와 같은 精神의 活動과 姿勢는 獨創的 方法을 가지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哲學者의 능능한 모습이요, 主體性이 넘치는 精神的 英雄의 모습이다. 眞理의 認識은 피땀어린 思索과 科學的 探究에 의하여 過去의 遺習과 그릇된 思考方式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확실하고 明晰한 것만을 眞理로 받아들이는 習慣을 붙이는 새로운 思考方式을 確立하는, 힘겨운 作業을 통해서만 바랄 수 있는 것이었다. Descartes는 스스로 이 作業을 自己에게 課하였다. 그리고 人類思想의 歷史上 그 누구보다도 심각한 회의를 밀고 나아가 마침내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根本의 原理, 그 위에 人間의 모든 지식이 자리잡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土臺를 발견하였다.

Descartes는 『省察』 (*Les méditations métaphysiques touchant la première philosophie*)의 첫째 省察에서 그의 懷疑의 過程을 體系의으로 敘述하고 있다. 여기서 Descartes는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과 自己가 과거에 품었던 모든 見解를 문제삼고 그것들을 모조리 뒤집어엎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 모든 것의 土臺가 되는 것을 뒤집어엎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전복하게 된다고 하여, 그 自身이 과거에 믿던 모든 것이 의거하는 原理 자체를 전복하는 일에 착수한다. 그리하여 그는 먼저 感覺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知識의 不確實性을 깨닫는다. 그는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참되다고 여겨온 모든 것을 나는 感覺으로부터, 혹은 感覺을 통하여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感覺들은 가끔 속인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였다. 그리고 한번이라도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하여는 결코 全幅的인 信賴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⑥ Descartes에게 있어서 感覺이란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것이요, 信賴할 수 없는 認識手段이다.

感覺이 참된 認識의 源泉이 될 수 없는 理由를 추궁하면서 Descartes의 思索은 차츰 깊이를 더해간다. ——^⑦ 너무 작거나 너무 먼 곳에 있는 물건들에 관해서는 感覺이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역시 感覺을 통하여 가졌으면서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을 법하다. 가령, 내가 지금 여기 있고, 난롯가에 앉아 있으며, 까운을 입고 있으며, 이 중

註 ⑥ AT, IX, 1, *Méditations*, 1964, Vrin, p. 14.

⑦ 다음의 ——까지 사이에 있는 글은 Descartes의 理論展開를 paraphrase 한 것임. 以下同.

이를 손에 쥐고 있으며 하는 따위가 그런 것들이다. 이 손과 이 몸이 내것임을 어떻게 否定할 수 있을까? 이것을 否定하는 것은 마치 내가 미친 사람들 속에 끼여 들어가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미친 사람들은 검은 膽汁에서 올라오는 나쁜 蒸氣 때문에 腦가 아주 뒤집혀져서, 알거지이면서 임금이라고 우겨대며, 벌거벗고 있으면서 자춧빛 옷을 입고 있다거나, 혹은 자기의 몸이 유리로 되어 있느니 하면서 고집한다. 그들은 정녕 미쳤으며, 만일 내가 그들을 본판다고 하면 나 자신도 미쳤음이 틀림 없다. —

그러나 여기서부터 Descartes의 思索은 幻想과도 같은 世界로 끌려 들어간다. 그는 “하지만, 나는 人間이다”라고 말하면서 思索의 날개를 펼친다. —나도 人間이므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고 또 꿈도 꾸는데, 그 꿈 속에서는 미친 사람이 깨어 있을 때에 가지는 妄想과 같은 것들 혹은 그보다도 더 엉뚱한 일들을 머리에 그린다. 밤에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어 있건만, 깨어 있을 때처럼, 내가 일어나 있고, 난롯가에 앉아 있다고 믿는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내가 지금 깨어 있어서 이 종이 조각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나는 어떤 意圖를 가지고 또 意識하면서 이 손을 펴며, 또 이것을 感覺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일들은 틀림없는 사실인 듯도 싶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注意깊게 생각해 볼 때, 나는 잠들어 있을 때, 이와 비슷한 錯覺에 의하여 가끔 속았던 것이 생각난다. 이러한 생각을 꼼꼼히 하고 있노라면 깨어 있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표적이 전혀 없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놀라움이 어찌 큰지, 나는 지금 꿈꾸고 있다고 믿을 지경이다. —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 생활과 활동이 모두 하나의 꿈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때가 있다. 이런 일은 우리의 意識이 어떤 흐릿한 滿足의 상태에 있을 때에 흔히 일어나는 現象이거니와, Descartes가 覺醒과 꿈을 분간할 수 없음을 느끼는 것은, 그저 우리의 意識의 弛緩狀態에서만이 아니다. 그는 꿈과 覺醒의 無差異 및 同一性を 근본적으로 定立해 보고 있는 것이다. 認識論으로는 이것이 充分한 妥當性を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主體性에 관한 認識에 있어서도 꿈과 覺醒의 混同이 있을 수 있다. 즉, 우리가 스스로 主體性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꿈 속에서의 생각과도 같이 허무한 것일 수 있다. 이것은 獨立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하여간 이런 면에서 우선 우리의 現實認識이 투철해야 한다.

그러나 Descartes의 思索은 一步 前進하여, 이러한 不透明한 우리의 意識 속에도, 어떤 확실한 것들이 들어 있지 않나 살펴본다.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하자. 또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는 것, 머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 손을 펼치고 있다는 것 같은 특수한 사실들이 헛된 錯覺이라고 假定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손이나 몸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잠잘 때에 꿈에서 본 것들이 마

치 現實에 정말 있는 것들의 모양을 떠지 않고서는 그려질 수 없는 그림과 같은 것이요, 따라서 적어도 눈이라든가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또는 몸全體라든가 하는 一般的인 것들은 空想的인 것이 아니고, 참되고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것임을 承認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畫家들이 세이레네스, 사튀로스 같은 것을 극히 奇妙한 모양으로 그리려고 애쓸 때에도 이것들에다가 아주 새로운 形像이나 性質을 붙여 줄 수는 없고, 다만 가지가지 動物들의 部分들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뒤섞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설사 畫家가 아주 奇想天外의 想像力을 발휘하여 우리가 여태까지 그와 비슷한 것을 본 적도 없는, 따라서 아주 虛構요 虛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새로운 어떤 것을 案出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그 그림을 構成하는 빛깔만큼은 現實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理由에서 설사 이 一般的인 것들, 즉, 머리, 손 그리고 이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 空想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보다도 좀 더 단순하고 普遍的인 것들이 現實的으로 존재하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자리잡는 모든 像들은, 참된(즉 現實的인) 것이건, 거짓된(즉 空想的인) 것이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現實의 빛깔에서 構成된 것처럼, 그러한 단순하고 보편적인 것들이 섞여서 構成되었다는 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종류의 것들은 어떤 것인고 하니, 一般으로 物體의 本性 전부, 그리고 延長이요, 또 延長이 있는 것들의 形體, 그 量이나 크기 및 그 數요, 그것들이 존재하는 場所, 그것들이 持續하는 時間, 그리고 이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이다. 이런 까닭에, 自然學·天文學·醫學, 그리고 이 밖에 複合된 물건들을 考察하는 다른 모든 학문들은 매우 의심스럽고 불확실한 것이지만, 이에 反하여, 算術·幾何學 그리고 이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 즉, 극히 단순하고 一般的인 것들을 다루며,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깊이 따지지 않는 학문들은, 어떤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結論을 내려도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닌 성싶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진, 잠들고 있진,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 되고, 또 四角形은 네개 이상의 邊을 가지는 법이 없으니 말이다. 이만큼 명백한 진리들을 거짓된 것이고 불확실한 것이라고 의심해 볼 도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내가 둘에 셋을 더할 때마다, 혹은 四角形의 邊을 셀 때마다, 또는 이보다 더 쉬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는 수도 있지 않을까? —

Descartes 는 여기서 일종의 信仰告白을 하면서도 懷疑는 끝까지 밀고 나아간다. —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神이 現存하고 그 神에 의하여 내가 現在와 같은 모양으로 創造되었다고 하는 意見을 나는 오래전부터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神이, 사실은 땅도, 하늘도, 延長을 가진 어떤 것도, 모양도, 크기도, 場所도 전혀 없는데,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神은 가장 善하신 분이므로 이렇게까지 내가 극히 단순한 사물들에 관해서도 속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끔 이러한 아주 단순한 문제들에서조차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하기는 다른 모든 것이 불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도 유력한 神이 있다는 것을 否定하려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神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假定해 두자. 神의 現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 現存이 運命이나 宿命에 의하여, 혹은 偶然에 의하여, 혹은 事物들의 連鎖에 의하여 생기게 되었다고 설명할 터이지만, 여기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할 것이 없다. —Descartes는 이런 說明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語調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릇 생각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것은, 어떠한 어떤 不完全性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내 存在를 창조한 분이 無力하면 할수록 그만큼 나는 不完全하고 늘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이 확실하다. 아뵤든 나는, 한때 내가 참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이제 와서는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無思慮나 輕率 때문이 아니요, 꼼꼼히 생각한 바 있는 強力한 理由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학문에 있어서 무엇인가 恒久的이고 확실한 것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명백히 거짓인 것에 못지 않게, 내가 한때 참된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同意하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

—이런 것들을 늘 마음에 두고 의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릇 習慣이 된 意見은 짓궂게 되돌아와서는 나 自身을 占領하고 엮어매니 말이다. 이러한 意見이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러면서도 참된 것인 듯이 보이는 점도 있어서, 그것을 부정하느니 보다는 옳다고 믿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 意見에 同意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意志를 正反對의 方向으로 돌려, 그러한 意見이 全的으로 거짓이요 空想的인 것이라고 假定하고, 어떠한 좋지 못한 습관도 물리치고 내 判斷을 사물들에 대한 올바른 知覺으로부터 빛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조금도 주체넘는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것은 行爲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認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不信의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지나친 일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회의하는 일에 대하여 神學者들에게 변명하는 것같은 말을 하면서 이만큼 思索의 길을 골똘히 걸어온 Descartes는 문득 惡靈(malin génie)에 想到한다. —眞理의 源泉인 最善의 神이 아니라 교활하기 짝이 없고 惡意있는 그러면서도 최고의 힘을 가진 어떤 惡靈이 온갖 힘을 다하여 나를 속이려고 한다고 가정하자. 하늘, 空氣, 땅, 빛깔들, 形體들, 소리들, 이 밖의 모든 外的인 것들은 이 惡靈이 나의 쉽사리 믿는 마음을 움켜쥐기 위하여 사용하는 幻影일 따름이라고 생각하자. 또 나 自身은 손도 없고, 눈도 없고,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 感覺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잘못 생각하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자. 끝까지 이 省察을 지켜 나아가려다. 그리하여 眞理를 인식한다는 것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적어도 거짓된 것에 同意하지 않고, 또 아무리 이 위대한 欺瞞者가 교활하다 해도, 그가 나에게 억지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정신을 가다

듬으려나. —

이렇게 覺悟를 단단히 하면서도 Descartes 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얼마나 짓궂은 것인가를 切感하며, 가지가지 苦難이 얽힌 理性的 思考의 生活보다 安易한 옛 생각에 젖어 지내기를 택하는 세상사람들의 모습을 凝視한다. 좀 불확실해도 예전의 信仰이나 慣習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편한 일인가. 그러나 眞理探究의 勇士는 이 慣習에, 자기가 예전에 품었던 낡은 見解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根柢에서부터 의심하고 뿌리째 뒤흔들어 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해야만, 새롭고 참된 眞理의 빛을 발견하고, 확실한 知識으로만 構成되는 學問의 體系를 세워볼 希望이 있다. Descartes 의 懷疑는 바로 이러한 意義와 使命을 지니고 있다.

Descartes 는 처음부터 이러한 使命感을 가지고 뚜렷한 目的에 대한 意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Descartes 의 회의는 그 어느 懷疑論者의 그것에 못지 않게 심각하고 철저한 터이지만, 결코 회의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620年 봄부터 9年 동안, 旅行하면서 회의하며 思索했던 일에 관하여 『方法序說』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回顧의 말을 하고 있다. “……무슨 일에 있어서나 의심스럽고 잘못 생각하기 쉬운 점에 대하여 특히 잘 살펴보면서 전에 내 정신 속에 스며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誤謬를 말끔히 뽑아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저 의심하기 위하여 의심하는 그리고 늘 非決定의 태도를 취하는 懷疑論者들을 흉내낸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내 계획 전체는 나 스스로 確信을 얻고, 동요하는 흠과 모래를 제거버리고 바위나 진흙을 찾아내는 데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⑧ 이 말에서 우리는 Descartes 의 회의의 意圖를 분명히 알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요,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한 것을 흔들림 없는 土臺 위에 세우려는 目的을 가진 <方法으로서의 회의>, 즉 <方法的 懷疑>다. Descartes 는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우리의 학문을 반석같은 기초 위에 세울 희망을 품고 있었고, 또 自己야말로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는 使命을 맡았다고 크게 自負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懷疑論者보다도 더 決然히 회의에 直面하여 一切의 것을 의심하되 가장 철저히 의심하였으며, 그리고는 人間에게 可能한 회의의 궁극에 이르러 마침내 그 모든 회의를 극복하였다. 惡靈의 假說은, 懷疑論에다가 최대의 힘을 빌려준 것이어니와, 이제 다시없이 확실한 Cogito, ergo sum 의 原理 앞에서, 光明한 太陽 빛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이 말끔히 除去되고 만다. 이 惡靈이라 하는 것은 宇宙의 어떤 非合理的인 要素가 우리의 정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暴力을 人格化한 것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으려니와,^⑨ 이러한 惡靈을 克服하는 Cogito 의 原理의 確立에서 우리는 Descartes 의 合理主義의 精神의 完全한 勝利를 보는 것이다. 이 勝利는 또한 그의 哲學者로서의

註 ⑧ AT, VI, pp. 28~29.

⑨ 이것은 Hamelin의 解釋. Octave Hamelin, *Le système de Descartes*, 1911, Alcan 參照. 이 밖에도 여러가지 解釋이 있다.

主體性的 完全한 確立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2. Ego sum의 發見

『省察』에 의하면, 省察의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Descartes는, 어제 깊은 회의에 빠져, 어떻게 하면 그 회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소용돌이치는 深淵 속에 갑자기 빠진 것처럼 낭패하여, 발을 밑바닥에 댈 수도 없고, 또 水面 위에 헤엄쳐 나올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물 위로 떠올라, 어제 걸어가던 길을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같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만 무슨 曙光이 비쳐올 것이라 믿은 것이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혀 거짓된 것임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양 제쳐놓으면서 前進하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확실한 것을 인식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은 못해도, 적어도 다음의 한가지 것, 즉,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는 데 이르기까지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Archimedes는 *ὄσος μοι πῶς στῶ καὶ κόσμον κινήσω* (나에게 설 자리를 달라, 그리하면 내가 宇宙를 움직이리라)라고 말하였다. 즉, 그는 全宇宙를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서 全宇宙를 움직이게 할 確固不動의 一點 밖에는 아무것도 求하지 않았다. 이런 정신을 따라 Descartes도 다행히 극히 작은 것일 망정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낸다면, 자기도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다. 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을 찾아 Descartes는 몸부림 치며 용기를 내어 회의를 뚫고 思索을 계속한다.

좌우간, 그는 그가 보는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라고 우선 假定한다. 또 우리를 속이기를 잘 하는 記憶이 나에게 提示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굳게 믿기로 한다. —나는 感覺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정한다. 物體, 形狀, 延長, 運動 및 場所는 幻影일 따름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것은 무엇인가? 아마도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이리라. 그러나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神이 있어서 내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아닐는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적어도 어떤 무엇이 아닐까? 하지만, 나는 이미 내가 어떤 身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否定한 바 있다. 그렇긴 해도 나는 좀 주저한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신체나 감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도록 이것들에 매어 있는 것일까? 그런데 나는 世界 안에서 하늘도 땅도 정신도 신체도, 하여간,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했었다. 따라서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무엇을 확신했었다고 하면, 혹은 그저 내가 무엇을 생각하기만이라도 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 아주 힘있고 아주 교활한 어떤 欺瞞者가 있어서, 온갖 제주를 부려 항상 나를 속이고 있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도 그가 나를 속인다고 하면 결국 나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껏 나를 속인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限, 그는 결코 나를 無이게끔 만들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이 모든 일들을 注意깊게 살펴보고 나서, 「나는 있다, 나는 現存한다.」(Je suis, j'existe)라고 하는 命題는, 내가 이것을 입 밖에 낼 때마다, 혹은 내가 이것을 내 마음 속에 품을 때마다, 必然的으로 참된 것이라고 結論짓지 않을 수 없다. —

모든 것을 의심한 混迷의 구렁텅이에서 이와 같이 손톱만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盤石 같은 眞理의 根據의 閃光에로 나아가게 된 精神의 遍歷을 Descartes 는 『方法序說』 第4部 첫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要約하여 論述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절대로 거짓된 것으로서 버리고, 이렇게 한 후에,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내 信念 속에 남지 않을는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려주는 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想定하려 하였다. 그리고 幾何學의 가장 단순한 문제에 관해서도 推理를 잘못하여, 여러가지 誤謬推理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도 다른 누구 못지 않게 잘못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서 내가 전에 論證이라고 보았던 모든 推理를 잘못된 것으로서 버렸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가지는 모든 생각과 똑같은 것이,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참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생각하고서, 나는 여태껏 정신 속에 들어온 모든 것이 내 꿈의 幻想보다 더 참되지 못하다고 假想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방 그 뒤에, 그렇게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동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반드시 어떤 무엇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Je pense, donc je suis; Ego cogito, ergo sum)라는 이 眞理는 아주 확고하고 확실하여, 懷疑論者들의 제아무리 터무니없는 想定들을 모두 합치더라도 이것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주목하고서, 나는 주저 없이 이것을 내가 찾고 있던 哲學의 第一原理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¹⁰

이리하여 Descartes 는 고된 회의의 旅路 끝에, 그가 바라던 Archimedes 의 點에 도달하였다. 이제 이 點, 이 자리에 서서, 그는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절대로 확실하기만 한 知識의 總體를 조직하고 體系를 세울 遠大한 꿈을 꾸다. 인간의 지식은 무한히 增大하며 進歩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지식이 의지할 튼튼한 기초는 바로 Descartes 가 세운 것인 바, 곧 그가 발견한 이 Cogito, ergo sum 의 原理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니 그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말할 사람도 있음직하다. 그러나 적어도 現代科學과 現代哲學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지고 이 기초 위에서 발전하여 왔다. 이 原理의 발견은 참으로 하나의 위대한 發見이다.

註 10 AT, VI. pp. 31~32.

3. 思考의 重要性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에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을 Descartes는 넓은 意味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다만 知的 作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判斷・意慾・感覺의 作用을 아울러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哲學의 原理』에서는 ‘생각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생각한다란 말로써 내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되 우리 自身이 직접 意識하는 모든 것이다. 따라서 理解한다(entendre)는 것, 바란다(vouloir)는 것, 想像한다(imaginer)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感覺한다(sentir)는 것도 생각한다는 것과 같다.”^⑩ 『省察』의 둘째 省察에서는 ‘생각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理解하고, 肯定하고, 意志하며, 意志하지 않으며, 또한 想像하며, 感覺하는 것”^⑪이라고 敷衍하고 있다. 하여간 ‘생각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우리의 精神의 活動 전체다.

그런데 「내가 있다」, 「내가 現存한다」는 것은 自明한 眞理로 同意한다 하더라도 왜 하필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前提 아래 「내가 있다」는 이 眞理를 내세우는가? 「나는 숨쉴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혹은 「나는 땀을 흘린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생생한 경험이요, 땀을 흘리는 것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실임으로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있다」는 것을 더 잘 보증하는 것이 아닐까? Descartes의 論敵 Gassendi는 <생각>만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活動으로부터도 現存(existence)이 歸結될 수 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Descartes를 論駁하였다. “우리들의 自然의 빛은 무엇이든지 활동하는 것은 또한 現存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므로, 그것(즉,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어떤 활동으로부터도 推論해도 靨藏았소.”^⑫ 이에 대하여 Descartes는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고는 推論할 수 없는 것이라고 答하고 있다.^⑬ Descartes에게 있어 「나는 숨쉴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든가, 「나는 땀을 흘린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든가, 혹은 「나는 걷는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라든가 하는 것은 可當치 않은 말이다. 즉, 身體的 行爲는 그 어느 것이나 나의 本質일 수 없다. 나의 本質, 나의 存在의 本質은 어디까지나 <생각한다>는 사실, 즉, 思考의 行爲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行爲에도 있지 않다. 『省察』의 둘째 省察에서 Descartes는 “그러면 나란 무엇인가?”고 묻고서 “하나의 생각하는 것 (une chose qui pense)”이라고 答하고 있다.^⑭ 그리고 “나는 있다, 나는 現存한다(jexiste) : 이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얼마 동안인가?”고 묻고는 “물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만이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생각하기를 아주 그친다면 그 순간 나는 또한 存在하기를, 즉, 現存하기를 그치겠기 때문이다.”^⑮라고 答하고 있는 것

註 ⑩ AT, IX-2, p. 28(第1部 第9項).

⑫ AT, IX-1, p. 22.

⑬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Elizabeth S. Haldane and G.R.T. Ross, trans.), Vol. 2, p. 137.

⑭ *Ibid.*, p. 207.

⑮ AT, IX-1, p. 22.

⑯ *Ibid.*, p. 21.

이다. 이만큼 내 생각은 내 存在와 不可分離하게 결부되어 있다. 내가 생각한다는 일이 없다고 하면 내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여기에 Descartes의 人間觀의 一面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人間은 순수한 思考의 能力을 가지고 있으므로써 人間이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精神의 活動에 의하여 다른 動物들과 구별되고, 또 神과의 類似性을 얼마간 가지는 것이다. 『省察』의 넷째 省察에서는 Descartes가 人間을 神과 無의 中間者로 파악하고 있는 귀절이 있다.¹⁷⁾ 그리고 그의 『省察』을 읽을 때, 우리는 그가 “오직 靈魂만이, 혹은 精神만이 나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듯한 印象을 받는다. 身體는 延長을 가진 것이요, 物質의·物體의인 것으로서 우리의 本性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精神만이 우리의 本性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더 나아가 Descartes는 身體와 精神을 峻別하고, 그 必然의 歸結로 精神의 不死를 論證한 것으로 自負하고 있다. 또 精神이 身體보다도 더 認識되기 쉽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Behaviorism 같은 自然主義의 立場에서 보면, 精神의 不死가 歸結되는 心身의 分離可能性은 하나의 神話일 터이요,¹⁸⁾ 또 常識의 立場에서 볼 때, 과연 精神이 身體보다 인식되기가 더 쉬운지 아리송하다. 어찌면 우리가 Descartes 만큼 明哲하지 못하여 정신과 신체의 分離可能性과 정신이 신체보다 더 인식되기 쉬움을 깨닫지 못하는 듯 느껴지는 때도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것 중, 前者는 분명히 形而上學의 問題요, 後者는 科學的 探究를 허용할지라도 立場을 따라 妄만이고 見解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라 하겠다. 그렇긴 해도, 이러한 思想을 내어놓은 Descartes의 精神的 活動은 어디까지나 제 발로 서고 제 머리로 생각하여, 즉 主體的 思考展開에 의하여, 哲學의 궁극 문제에 부딪혀 나아가 하나의 信念과도 같은 자리에 도달한 것이라 하겠다.

4. Cogito, ergo sum 은 하나의 直觀인가? 혹은 推論인가?

Cogito, ergo sum 이라고 하는 自명한 眞理는 直觀에 의하여 파악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推理에 의하여 얻어진 結論인가? 이 문제는 아직도 결정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다. Hamelin은, “Cogito의 文法的 形式은 하나의 結論의 그것이다. 그러나 거기엔 그 이상의 것이 있다. 『方法序說』, 『哲學의 原理』, 『眞理의 探究』, 아니, Cogito를 문제삼고 있는 Descartes의 모든 텍스트(例컨대, 『哲學의 原理』의 序文의 그것)는 그것을 하나의 推理로서 提示하고 있다.”¹⁹⁾라고 말하며, “따라서, 첫째가는 眞理인 Cogito는 하나의 判斷의 眞理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推理의 眞理다.”²⁰⁾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Cogito, ergo sum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直觀의 眞理라고 보는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 이들에 의하면, 「나는 있다」가

註 17) Ibid., p. 43.

18) Gilbert Ryle이 이런 立場에서 있다. 그의 *The Concept of Mind*, 1949. Hutchinson of London, 第1章 「레카르트의 神話」 參照.

19) Hamelin *op. cit.*, p. 131.

20) Ibid., p. 135.

「나는 생각한다」로부터 推理되는 것이 아니요, 이 兩者는 <나>의 直接的 自己意識에 있어서 同時に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를 엄밀하게 표현 하려면 「그러므로」를 빼고 「나는 생각하며, 있다.」(Cogito, sum) 혹은 「나는 생각하면서 있다.」(Sum cogitans)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Georges Duhamel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것은 推理가 아니라, 하나의 외침이다. 이것은 告白이다. 이것은 直觀의 分野에 속하며, 方法과는 상관없는 認識行爲이다.”²¹⁾라고 말하고 있으며, Albert Camus는 “Cogito는 그 자체 하나의 反抗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²²⁾ 이 두 文學者의 이와 같은 發言 내지 解釋은 매우 獨自의인 것이라 하겠거니와, 거기엔 충분한 理由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Cogito의 原理를 볼 수 있다면, Cogito의 原理의 確立은 또한 강한 主體性의 確立이라고도 볼 수 있다.

Cogito, ergo sum은 推理의 結果인가, 直觀的 眞理인가? 이 兩論 가운데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Hamelin의 주장에도 一理가 있고, Duhamel이나 Camus의 말에도 一理가 있다. Descartes는 “眞理는 中間에 있다”²³⁾란 意味의 말을 한 적이 있거니와, 이 경우에도 眞理는 中間에 있음직하다. 즉, Cogito, ergo sum은, 形式上으로는, 하나의 推理라고 할 수 있고, 사실 Descartes가 思索하고 推理하는 가운데 얻은 최초의 매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內容, 그 本質에 있어서는, 推理에 전혀 의거하지 않은 根源的 眞理요 直觀的 自明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Descartes自身은 『省察』에 대한 둘째 論駁에 대하여 答辯하는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혹은 現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의 三段論法에 의하여 생각으로부터 現存을 結論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알려지는 것인양, 精神의 洞察에 의하여 그것을 보는 것이다.”²⁴⁾ 이 말을 미루어 Descartes도 Cogito, ergo sum의 眞理를 直觀的인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거니와, 하여간, Cogito, ergo sum은 Descartes에게 있어서 懷疑의 暗黒 속에서 얻은 처음 빛발이요, 또 무엇보다도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기쁨의 외침이요, 그 위에 確실한 것들만의 知識體系를 建設할 수 있을 것을 약속해주는 希望의 基礎였다.

5. Cogito, ergo sum의 獨創性

神學博士 Arnauld는 『省察』에 대한 論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Descartes가 그의 哲學 전체의 기초 및 第一原理로 세우고 있는 것은 이미 그에 앞서 Saint Augustin이 그의 哲學의 土臺 및 支柱로 삼았던 것이다.”²⁵⁾ 이 밖에도 여러 면에서 Augustinus가 Descartes

註 21) Georges Duhamel, *Descartes maître à penser* (1937년의 講演).

22) Albert Camus, *Remarques sur la révolte*, 1949, p. 13.

23) AT, VI, p. 23 參照. (여기서는 “모든 極端은 으레 나쁘다”고 말하고 있다.)

24) AT, IX-1, p. 110.

25) *Ibid.*, p. 154.

의 思想의 先驅者임을 주장하고 있다. Augustinus 와 Descartes 는 다 같이 Platon 的인 提가 있어 비슷한 점이 적지 않음은 사실이다. Augustinus 는 일찌기 “너 自身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서 말고, 너 自身에게로 돌아가라. 眞理는 人間 속에 있느니라.”^⑥라고 말하였다. 나를 살피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知識의 基盤이 되며 出發點이 된다고 믿고 思索을 전개해 나아간 점에서, Augustinus 와 Descartes 사이에는 類似點이 있다. 또 Augustinus 는 神이 “眞理의 아버지, 知識의 아버지, 知性的 빛의 아버지”^⑦라고 말하고 있는데, Descartes 도 神을 이룰테면 眞理의 源泉 내지 眞理認識의 保證者로 보고 있어,^⑧ 이 점에서도 생각이 비슷하다. 또 Arnauld 에 의하면, 우리가 속기 위해서도 우리가 現存해야 한다고 하는 Descartes 의 發想도 이미 Augustinus 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Augustinus 는 『自由意志論』(De libero arbitrio) 第2卷 第3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먼저, 우리가 가장 명백한 것들로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묻고자 한다. 즉, 그때가 있는가, 혹은 아마도 내 물음에 答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가고. 하여간, 그때가 전혀 없지 않다면, 결코 속임을 당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고.”^⑨

이리하여 Descartes 의 第一原理은 새로운 것이 못되며, 독창적인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음직도 하다. 그러나 Descartes 는 이러한 批判을 문제도 삼지 않는다. 그는 聖 Augustinus 가 “그것을 자기와 똑같은 用途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⑩고 말하고 있다. Etienne Gilson 에 의하면, “Descartes 의 論議는 Saint Augustin 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意圖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Saint Augustin 은 그것을 人間 속에서 三位一體의 模像(image)을 再發見하기 위하여 전개하고 있고, 한편 Descartes 는 精神과 身體의 實在的 區別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歸結을 증명하기 위하여 論議를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⑪ 하여간, Descartes 는 自身의 심각한 문제, 인간이 과연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을 한가지라도 가질 수 있으며, 그것 위에 우리의 學問의 體系를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省察하는 가운데, 순전히 자기 혼자 思索에 의하여 Cogito, ergo sum 의 眞理에 도달한 것이라고도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Cogito, ergo sum 은 독특한 意味와 意義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Descartes 자신의 發見이요, 現代哲學의 이 出發點을 찾아낸 것은 바로 Descartes 다.

註 ⑥ Augustinus, *De vere religioine*, cap. XXXIV 72.

⑦ Augustinus, *Soliloquia*, Lit, I. cap. I. 2.

⑧ AT, IX-1, pp. 49~50.

⑨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I, 3.

⑩ Etienne Gilson, *Études sur le rôle de la pensée médiévale dans la formation du système cartésien*, 1951, Vrin p. 191에서 再引用.

⑪ *Ibid.*, p. 193.

第3章 主體性 確立의 길

이상에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의 意味를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는 있다」고 하는 根本的 事實의 再發見이요, 再確認이었다. 정녕, <나>는 있어야 하고, 人間으로서 있어야 하고, 생각을 통해서 있으며, 또 있어야만 한다. 主體性 確立과의 관계에서 볼 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는 우선 「내가 있기 위해서 나는 생각해야 한다」란 命題로 옮겨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백성이란 살아야 산다”는 유명한 말도 있지만, 사실 <생각>은 인간의 특권이요 영광이며, 또 정녕 生命線이다. 우리는 생각하여야 한다. 主體性을 確立하고 싶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主體性에 관하여 생각함에 있어, 우리는 먼저 正確한 自己認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Cogito, ergo sum 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사실이요, 진리이지만,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Descartes 는 고된 회의 끝에 이 진리에 도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主體性을 확립하기 위하여 正確한 自己認識을 가지려면, 먼저 깊은 懷疑의 作業을 거쳐 불확실한 것들과 皮相的인 것들을 除去해야 한다. 形式上 獨立이 되어 있다고 主體性이 있는 것도 아니요, 韓國思想이니, 韓國의 民主主義니, 國籍있는 教育이니 하는 따위의 口號를 외운다고 해서 主體性이 있는 것도 아니다. 참된 主體性을 획득하려면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主體性의 검메기에 지나지 않는 裝飾物들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裝飾物들은 참된 主體性의 內容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國粹主義의 粉飾物들이다.

물론, 프랑스 같은 나라와 그 國民은 主體性이 강한 나라요 國民이다. Descartes 가 스웨덴에서 肺炎으로 죽게 되었을 때 醫師가 피를 뽑으려 하자, “프랑스인의 피를 아끼시요!”라고 말했다 하거니와, 이것은 主體性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얼핏 농담인 듯 싶으면서도 機智가 있고 諦念과 決意를 보여주기도 하는 말이라 하겠다. 그런데 主體性이 강하다는 것은 덜어놓고 外來의 것을 배척하고 자기 것만을 숭상하고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排他的・閉鎖的 思考方式과 態度에서 생기는 결과는 진정한 國力의 衰退와 심지어 民族의 生命의 枯渴, 내지 最惡의 경우에는 民族의 滅亡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우리의 그릇된 생각이 重大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무턱대고 傳統文化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傳統文化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다. 우리의 言語 속에, 우리의 生活 全般속에, 우리의 피 속에는 傳統的인 무엇이, 아니, 傳統의 生命이 脈搏치고 있다. 要는 精神에 있다. 精神이 主體的이어야, 모든 것이 主體的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人間이요, 人間은 精神을 가진 動物, 아니, 存在요, 民族은 이러한 人間들의 集合이기 때문에, 民族의 主體性은 이 精神의 資質과

그 確固不動한 姿勢에 달려 있다. 그 精神이 살아 있어서 矧새없이 활동하며, 智慧를 발휘하여야 하고, 個人的으로나 民族 전체로나 모든 行위에 있어서 決然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고 또 용감해야 한다. 요컨대, 正確한 自己認識에서 출발하여, 우리의 弱點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강한 精神力을 가지고 모든 일에 智慧・決意・勇氣로써 임하는 데 비로소 主體性의 確立이 期約될 수 있다.

Essai sur les sens du Cogito, ergo sum

—Pour établir une subjectivité—

Choe, Myung-Kwan

Résumé

Chapitre Premier—Le problème de la subjectivité

1. Le *cogito* et la subjectivité

Il paraît que le *cogito, ergo sum* donne plusieurs sens à expliciter. Nous pensons ici que ce principe cartésien peut aussi en signifier la subjectivité. Par le mot 'subjectivité' nous comprenons l'indépendance de la pensée et de l'action en état individuel ou national.

2. Le paradoxe de la subjectivité

Chez nous on a discuté beaucoup sur la subjectivité comme chez les pays en voie de développement. Ce phénomène peut vouloir dire que notre pays a besoin de mettre au point l'esprit de subjectivité.

3. La subjectivité nationale

La Corée était bien malheureuse au point de vue de la subjectivité nationale. Elle a été souvent sous l'influence de la Chine pendant plus de mille ans, et au temps moderne a été colonisée pendant trente six ans par Japon. Après la seconde guerre mondiale, elle a été divisée en deux parties; le Nord avait été occupé par les Russes et le Sud par les Américains.

Ces deux parties n'ont pas encore suffisamment cultivé le problème de la vraie subjectivité nationale. En ce qui concerne la Corée du Sud, on pourrait dire dans une certaine mesure que l'envoi de l'armée au Vietnam ne se faisait pas d'une manière volontaire et que des marchandises américaines et japonaises empiètent sur l'économie coréenne. Elle ne se démêle pas encore politiquement et économiquement des pays relativement puissants.

Chapitre II—Les sens du *cogito, ergo sum*

1. Le doute

On sait bien comment Descartes avait mis en doute toutes les choses. Plus le doute était profond, plus la solution des problèmes était claire. Pour Descartes, le doute était une secousse de l'âme tout entière, mais cela lui a assuré l'établissement d'une science admirable, d'une grande victoire de l'esprit rationaliste.

Dans *Les principes de la philosophie* Descartes dit: "Comme nous avons été enfants avant que d'être hommes, et que nous avons jugé tantôt bien et tantôt mal des choses qui se sont présentées à nos sens lorsque nous n'avons pas encore l'usage entier de notre raison, plusieurs jugements ainsi précipités nous empêchent de parvenir à la connaissance de la vérité (PREMIÈRE PARTIE, 1) Mais quand celui qui nous a créés serait tout-puissant, et quand même il prendrait plaisir à nous tromper, nous ne laissons pas d'éprouver en nous une liberté qui est telle que, toutes les fois qu'il nous plaît, nous pouvons nous abstenir de recevoir en notre croyance les choses que nous ne connaissons pas bien, et ainsi nous empêcher d'être jamais trompés (PREMIÈRE PARTIE, 6)." Le doute pour parvenir à la connaissance de la vérité, la liberté qui est telle que, . . . nous empêcher d'être jamais trompés—cette activité et posture de l'esprit figurent un philosophe de subjectivité, un héros spirituel plein de subjectivité, qui marche avec la méthode originale et utile à la recherche de la vérité et de la certitude.

2. La découverte d'*ergo sum*

Après le doute sinueux, Descartes arrive enfin au point archimédien. Il rêve d'établir, à partir de ce point, un système de toute la connaissance humaine absolument certaine. La connaissance humaine sera progressée infiniment. Cependant, la base de toute la connaissance est le principe du *cogito*. La science et la philosophie moderne ont été fondées sur cette base.

3. L'importance de penser

Le *cogito* a un sens très large. Penser, c'est, en un mot, la totalité de notre activité mentale.

La conception cartésienne de la séparabilité de l'âme d'avec le corps pourra être regardée comme un mythe. Mais l'insistance cartésienne sur le poids philosophique de penser doit être conçue justement comme pleine de valeurs. Car ainsi Descartes a-t-il arrivé à penser toutes les choses à partir de l'âme subjective qui est aussi susceptible de voir le monde objectivement.

4. Le *cogito, ergo sum* est-il une intuition ou une inférence?

Cette question paraît ne pas encore être résolue. La vérité paraît demeurer entre les

deux opinions extrêmes.

Quand M. Duhamel dit que le *cogito, ergo sum* n'est pas une inférence, mais un cri et une confession et quand M. Camus dit que le *cogito* est lui-même une révolte, il est vrai que l'établissement de ce principe est en même temps celui de la subjectivité de l'indépendance de l'esprit même.

5. L'originalité du *cogito, ergo sum*

On assume bien que des pensées cartésiennes, y compris celle du *cogito*, dérivent de l'origine de St. Augustin. Mais nous voulons insister que Descartes l'avait pensé tout seul sans influence augustinienne. Chez Descartes, le *cogito, ergo sum* a un sens et une signification tout à fait spécifique. Cela était seulement la découverte de Descartes lui-même.

Chapitre III—Chemin à établir la subjectivité

Le *je pense, donc je suis* pourra être transformé au *je dois penser pour que je sois*. En pensant, je dois d'abord connaître exactement ma situation, telle que je suis comme un homme et que je vis. En même temps, nous devons connaître exactement la situation de notre pays. Ça sera un premier pas pour établir la subjectivité. Le fascisme et l'exclusivisme ne peuvent se dire comme une vraie subjectivité. L'âme close et exclusiviste pourra en fin de compte faire périr la vie nationale.

Nous n'insistons pas, cependant, de négliger notre culture traditionnelle. Nous ne pouvons pas éliminer des choses traditionnelles. Ce dont il s'agit est notre âme, notre posture et notre esprit. Nous sommes les hommes avec les âmes. Le pays est une totalité de ces âmes. Alors la subjectivité nationale dépend de la qualité de ces âmes et de leurs postures. Les âmes doivent être vivantes, manifester la sagesse et prendre la posture inébranlable sur toutes les actions pour la vérité.